

박항서의 베트남, 스즈키컵 우승시 내년 3월 벤투호와 A매치

등록 2018.12.15 16:26:08



【하노이=AP/뉴시스】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박항서(가운데) 감독이 6일(현지시간) 하노이 미딘 국립 경기장에서 열린 아세안 축구연맹(AFF) 스즈키컵 준결승 필리핀과의 2차전 홈 경기에서 두유맹(왼쪽)에게 작전 지시를 하고 있다.베트남은 지난 2일 필리핀과 결승 1차전 원정경기에서 2-1로 승리한 뒤 이날 2차전에서도 2-1로 이겨 합계 4-2로 결승에 진출했다.박항서호는 오는 11일과 15일 말레이시아와 홈&원정 경기로 우승을 다룬다. 2018.12.7.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동남아 축구 국가대항전인 스즈키컵에서 우승하면 내년 3월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과 A매치 평가전을 갖는다.

대한축구협회는 15일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내년 3월 A매치 기간에 스즈키컵 우승팀과 맞대결을 펼친다"고 전했다.

동아시아축구연맹(EAFF)과 동남아시아축구연맹(AFF)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동아시아연맹컵(E-1 챔피언십) 우승팀인 한국과 올해 AFF 스즈키컵 우승팀이 내년 3월 26일 경기를 갖기로 했다.

베트남이 스즈키컵 결승에 오른 가운데 말레이시아와의 1차전에서 2-2로 비겼다. 이날 밤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전을 치른다.

여기서 베트남이 정상에 오르면 벤투호와 대결이 성사된다.

해당 경기는 스즈키컵 우승팀의 국가에서 단판 승부로 열린다. 경기 명칭은 '2019 AFF-EAFF 챔피언스 트로피'다.

협회 관계자는 "처음 개최되는 이번 경기는 지난해 양 연맹이 체결한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두 지역의 축구발전과 협력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울산=뉴스시스】배병수 기자 =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1일 오후 울산시 중구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아시안컵 국내 최종훈련에 앞서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12.11. bbs@newsis.com
두 연맹의 대회 우승팀의 경기는 향후에도 2년마다 지역을 번갈아가며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1 챔피언십이 2019년 한국에서 열리고, 스키컵이 2020년에 개최되므로 두 번째 'AFF-EAFF 챔피언 트로피' 경기는 2021년에 열릴 예정이다.

동아시아축구연맹 회장을 겸하고 있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AFF-EAFF 챔피언스 트로피 경기 개최에 합의하게 돼 기쁘다. 두 연맹의 우호관계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소속된 각 지역 연맹 중 가장 성공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fgl75@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